

# ‘이상 과열’ 스팩, 주가 3000원 넘으면 상장 가능성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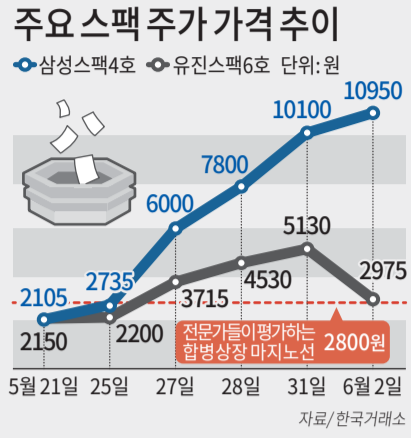
## 예고된 붕괴 ‘스팩’

### (下) 스팩 열풍과 그림자

합병 전 주가상승, 결합 가능성 ↓ 스팩 청산시 발기인 10~15% 손해 합병상장 2700~2800원 마지노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는 ‘바다에 있는 주식투자’로 불리며 안전한 투자처로 불린다. 하지만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 곳들은 예외다. 합병 전 급격한 주가상승이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협상력과 효율적 기업결합 가능성을 낮춘다. 전문가들은 스팩 주당 가격이 3000원을 넘어서면 합병상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스팩 종목이 이날 줄줄이 급락했다. SK4호스팩은 전날보다 23.81% 떨어진 2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뿐만 아니라 SK6호스팩(-23.51%), 신영스팩5호(-16.08%), 신영스팩6호(-14.89%), 한국제8호스팩(-13.06%), 신한제6호스팩(-12.00%) 등



도 일제히 급락했다. 전날 하한가까지 떨어진 하이제6호스팩(-18.90%), 유진스팩6호(-18.61%)도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이날 거래가 재개된 삼성스팩4호(24.25%)를 비롯해 IBKS제15호스팩(18.00%), IBKS제12호스팩(7.41%)은 급등세를 보였다.

주가가 오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스팩 입장에서는 합병이 어려워진다. 합병가액이 공모가나 자본금이 아니라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스팩의 실질적 기업가치는 순자산가

치와 상장 프리미엄으로 주가와 무관하다. 합병가액이 높아지면 대상기업으로는 그만큼 상장 프리미엄을 더 높게 주는 셈이다. 당연히 합병 소식 이전에 주가가 상승한 스팩은 인수·합병(M&A) 대상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박범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합병 이전 스팩의 주가 상승은 스팩 협상력과 효율적 기업결합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이라며 “합병가액의 기준일이 지난 후에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어 합병 공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시가총액 100억원짜리 주당 2000원 스팩과 500억원의 가치평가를 받은 비상장사 A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부채 없이 현금만 100억원을 가진 스팩과 500억원 규모 A의 합병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A사 지분 100%를 갖고 있던 대주주는 합병 후 6분의 5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스팩 주가가 5배로 급등해 시총이 500억원까지 늘어날 경우 A사 대주주의 지분율은 2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진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스팩 가격

이 높아질수록 합병 후 지분이 많이 희석되는 만큼 합병상장을 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는 과거 하나머스트3호스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하나머스트3호스팩은 존속 기한 8개월여 가량을 남긴 2017년 3월부터 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이후 한 때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하며 한 때 6000원선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시 급락세를 보였으나 3000원 내외를 반복하며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해 7월 말 청산과 함께 상장 폐지됐다.

스팩 전문투자사 머스트홀딩스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스팩 8곳 중 유일하게 청산된 종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하겠다고 나선 기업이 있었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급등한 스팩의 발기인도 난처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상장유지비 등 기타 관리비용을 발기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스팩이 청산될 경우 발기인은 10~15%가량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남강욱 얼라이언스캐피탈파트너즈

(ACPC) 부사장은 “스팩 가격이 3000원을 넘어설 경우 합병상장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확률이 아예 제로(0)”라고 단언했다. ACPC는 국내 유일한 스팩 자문사로 시장에선 ‘스팩 제조기’로 통한다.

다른 증권사 스팩 담당자도 “30%까지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700~2800원 정도가 합병상장이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기관투자자들은 주저 없이 바로 팔아치운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오른 스팩을 끝까지 들고 있으면 반드시 손실을 본다든 얘기도. 남 부사장은 “암호화폐와 공모주 등 이슈가 잡잡해지다 보니 초보 투자자를 비롯한 갈 곳 잃은 자금이 스팩시장으로 넘어왔다”며 “청산될 경우 시장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2050원~2100원 수준으로 그 이상 가격에 사들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역시 “투자자가 고가에 스팩을 매수했다면 매수금액 대비 반환되는 투자금은 공모가 2000원에서 소정의 이자뿐”이라고 경고했다.

/송태하 기자 alvin@metroseoul.co.kr

## 항공업계 “고용 불안… 대책 마련하라”

### 고용유지지원금, 이달 말 종료 고용정책심의회, 기간 연장 검토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 종료에 임박하면서 항공업계가 한목소리로 기간 연장 등 고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정책심의회에 3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약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고용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항공업계를 포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해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커지자 정부에서 자금적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



2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용정책심의회에 3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직과 무급휴직 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항공사가 받고 있는 지원금은 유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이다.

다만 이번 달 말에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7월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직원들은 기존 평균임금의 70%에서 50% 수준으로 급여가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지금보다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항공업계 노동자들은

고용정책심의회에 고용 대책 관련 3가지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제도의 보완 ▲장기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진 등이다.

현재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지난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 연장 안건을 검토 중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포스코, 대만 신축 공항 건설에 후관 공급

### 터키 이후 최대 규모

포스코가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대만 타이완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신축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용 후관 7만톤을 전량 공급한다. 이는 포스코가 지난 2020년 터키 ‘차나칼레 대교’에 건설용 후관 12만톤을 공급한 이후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다.

2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만 최대인 타이완위안 국제공항이

늘어나는 공항 이용 수요에 대비해 기존 1, 2터미널에 제3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1조 8000억원인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착공해 2025년에 완공 예정으로 연간 수용 가능한 인원은 총 65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포스코는 프로젝트 정보 사전 공

유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준에 맞는 강재 이용기술을 제공하고 최적 물량을 산출해 프로젝트 스케줄에 맞춘 안정적인 공급을 제안했다.

지진 발생이 잦은 대만에서는 모든 건축구조물에 필수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하며, 이에 적용되는 철강제품 또한 내진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포스코가 공급하는 제품 역시 지진 발생시 진동을 최대로 흡수해 구조물의 변형을 막아주는 내진용 후관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제품은 포스코의 고부가가치 WTP(World Top Premium) 제품이다. /양성운 기자 ysw@

## SK, ‘씨니’에 새로운 기업가 정신 담았다

### SK그룹 사내 교육 플랫폼 분야별 전문 콘텐츠 강화

SK그룹 역량 강화 플랫폼 ‘씨니’가 다양한 학습과정을 추가하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촉진하고 나섰다.

2일 SK그룹에 따르면 씨니는 구성원들이 각 관계사 사업에서 최대원 SK회장이 강조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적극 구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 콘텐츠를 강화했다. 글로벌 석학들과 사

외이사들도 씨니에 참여해 교육 전문성과 인사이트의 깊이를 더했다.

씨니는 지난해 1월 출범 당시 8개 분야를 다뤘으며, 지난 5월까지 11개로 영역을 넓혔다. 과정은 900여개에 2600여 시간에 달하며, 구성원들도 누적 360만 시간 참여했다. 다양한 최신 콘텐츠와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비즈 혁신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SK가 RE100에 가입하는 등 ESG 경영을 가속화하면서는 ‘ESG 이해’ 등 30여 콘텐츠를 개설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를 추가하며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에너지솔루션 과정도 ‘환경 칼리지’로 새로 확대 개편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높은 학습 수요를 반영한 것. 포괄적인 ESG와 차별화된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소 등 환경 이슈에 대한 개념 강의부터 사업모델과 결합하는 프로젝트 과정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구성원들이 환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초 신설한 ‘BM 디자인과 스토리텔링 칼리지’도 인기가 높다. 고객과 투자자의 공감을 얻는 스토리 만들기부터 BM 디자인 방법론, M&A 과정 등 현업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다양한 콘텐



SK그룹 구성원 역량 강화 플랫폼인 ‘씨니’에 개설된 연재호 SK(주) 이사의 인사이드 특강 장면 /SK그룹

츠를 제공, 각 관계사의 파이낸셜 스토리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강조한 이후 노력이다.

글로벌 석학과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도 있다. 스토리텔링의 가이드북으로 불리는 ‘내러티브 앤 넘버스’의 저자인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가 SK 구성원을 위해 직접 강연한 강의는 수강생들의 높은 평점을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손골 교수와 공동 개설한 ‘사회적 가치/ESG 케이스’ 과정은 각 관계사의 사업개발 담당 임원들이 ESG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씨니는 구성원별 관심사를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효율성을 높여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중이다. 구성원들 역시 “ESG를 왜 하는지 고민해 본 기회였다” 등 수강 후기를 공유하거나 현업에서 필요한 추가 과정을 제안하며 학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SK 관계사별 ‘거버넌스스토리’ 주제인 사외이사들도 5월 말부터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담은 참신하고 깊이있는 ‘인사이드’ 특강으로 구성원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재호 기자 juk@